

26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307.27 (+223.41)	1188.15 (+22.90)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3.070 (-0.054)	1427.95 (-1.45)

metro® 경제



“모든 모바일 신제품에 AI 지원할 것”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AI, 모두가 부담없이 쓰게 데이터 보호·통제 경험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6’ 행사 직후 국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AI 대중화를 위해 작년 말까지 4억 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올해는 이를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출시하는 모든 모바일 신제품은 스마트폰을 포함해 태블릿, PC, 웨어러블까지 AI를 지원하겠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삼성 갤럭시 언팩 2026’ 행사 직후 열린 국내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AI를 누구나 쉽고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AI를 기본 인프라화하기 위한 ▲접근성 ▲보편성 ▲신뢰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2·3면>
보편성은 더 쉽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노 사장은 “AI가

특정 사람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닌, 모두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이전틱 AI가 더 매끄럽게 작동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운영체제 레벨에서 맥락을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AIOS를 구글과 공동 개발해 곧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뢰에 대해 노 사장은 “AI가 인프라가 되려면 성능이 충분히

믿을 수 있어야 하고,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근간”이라며, “삼성은 사용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데이터 보호와 통제 경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사장은 “전작인 갤럭시 S25 시리즈는 출시 초반의 일시적 수요가 아닌, 사용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반응이 쌓인 결과 지속적으로 판매 모멘텀을 강화시켰다”고 설명하며 갤럭시 S

객들과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로 전작의 판매 성과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하고, 올해 출시되는 모든 모바일폰 제품군에서 고르게 성장해 모바일 AI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가 전작을 뛰어넘는 판매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갤럭시 S26 시리즈로 전작을 넘어서는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올해 출시되는 플래그십부터 A 시리즈까지 전 제품군에서 고르게 성장해 모바일 AI 리더십을 한층 더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 사장은 “갤럭시 S26은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바탕으로 카메라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세계 최초로 모바일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며 “‘모바일 에이전틱 AI’라는 새로운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제품으로 사용자 중심의 AI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미국)=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기준금리 6연속 2.50% 유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가상승률 안정적 흐름 속 금융, 안정측면 리스크 지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연 2.50%)를 6회 연속 동결했다.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상향 조정했지만,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지속되는 만큼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기로 했다. 26일 한은 금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기로 결했다. <관련기사 4면> 이창용 한은총재(사진)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0%)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이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며 동결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위원 전원 일치였다”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이날부터 조건부 금리전망(포워드가이드)을 개

선해 ‘3개월 대신 ‘6개월 후’ 전망을 경제전망발표회의(2·5·8·11월, 연 4회)마다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 전원이 각자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3개의 점(확률분포)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번 회의 조건부 금리전망에서는 16개의 점들이 2.50%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2.25%(4개)·2.75%(1개)에도 일부가 제시됐다. 한은은 올해 국내경제가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반도체 경기 호조와 양호한 세계경제 성장세 등에 힘입어 수출·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1.8%)보다 높은 2.0%로 제시했다. 물가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낮아졌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2.0%로 전월과 같았다. /김주형 기자 gh471@

“아직도 고점 아냐”... 삼성·SK 목표주가 ‘UP’

맥쿼리, 한달새 목표가 상향 삼성 34만원, SK 170만원 “1분기 범용 D램값 2배 상승” 씨티뱅크·SK증권 등 업계 일제히 목표주가 상향조정

증권가에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맥쿼리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34만원, SK하이닉스를 170만원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24만원·112만원으로 제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맥쿼리증권은 “범용 D램 랜드 가격은 2026년 1분기에 두 배로 상승할 전망”이라며 연중 내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뱅크는 범용 반도체 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예상한 곳은 SK증권이다. 이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0만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60만원으로 올렸다. 이날 증가(삼성전자 21만 8000원, SK하이닉스 109만 9000원)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37.61%, SK하이닉스는 45.59%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셈이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AI는 기존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디램(DRAM)·낸드(NAND) 전체를 활용하기 시작했지만, 공급은 점차 복합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며 “공급자들의 낮은 재고와 AI메모리의 구조적 수요, 증설 여력 제약에 따른 가격 협상력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메모리 호황이 유동성 확장과

동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한국 메모리 기업에 대한 재평가는 시작도 하지 않았고, 글로벌 AI 관련주에서 한국 메모리가 가장 저평가”라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2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렸다. 지난 27일 목표주가를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지 사흘 만에 다시 3만원(15%)을 더 올린 것이다. 삼성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주기도 3일 만에 95만원에서 130만원(36.8%)으로 상향했다. 삼성증권의 이종욱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을 161조원,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을 29조 4000억원으로 추정하면서 “이익 전망 상향과 함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6%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할인 요인이었던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 부

진과 D램 이익률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며 “메모리 모멘텀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고 이익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전 제품군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고, 사실상 출하량 성장 없이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목표주가 상향은 삼성증권에 그치지 않았다. 대신증권은 24만원에서 27만원으로 3만원(12.50%), IBK투자증권은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6만원(33.3%) 각각 상향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 조정도 단기간에 이뤄졌다. NH투자증권은 112만원에서 130만원, 미래에셋증권은 137만원에서 154만원, 대신증권은 125만원에서 145만원으로 올렸다. /신하은 기자 godhe@

메트로 한줄뉴스



- ▲오세훈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려는 건가” /사진 뉴스사
- ▲조국혁신당 “정부 檢개혁안 기대 못 미쳐...대폭 수정해야”
- ▲장동혁, ‘돌파구 마련’ 필요성에 공감...최고중진회의 열기로
- ▲나경원, “당내분열은 곧 공멸...위기에 자기정치에 매몰”
- ▲김정은, 韓 향해 ‘영원한 적’ ‘완전 붕괴’...美에는 대화 손짓
- ▲與, 한반도평화위 출범...정청래 “평화가 주식이자 주가지수”